

湖南地域의 學風과 士人關係가 청 말기 지도제작에 미친 영향으로 본 지역 특성과 학문 발달과의 관계

이명희(경희대학교)

1. 머리말

중국의 지역적 특성과 학문 발달을 처음 연계시킨 것은 梁啓超였다. 그는 『近代學風之地理的分布』¹⁾ 라는 글에서 그의 또 다른 저작 『清代學術概論』 말미에 다루었던 “分地發展”의 개념, 즉 지역에 따른 학문의 발전을 이야기 하며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양계초는 중국의 넓은 영토와 복잡한 민족 구성, 기후 등 자연환경을 언급하며 특히 기후와 산천의 특징이 사람들의 성질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누대에 걸쳐 발휘되어 전해지면 이런 특징들이 다시 대외 교통 및 일체의 물질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습관과 사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므로 같은 국가, 동일한 시간대에서도 문화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차이는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고 분석하고 있다.²⁾

본고는 청 후기 지도제작의 변화와 발전에 호남지역 지식인들의 영향이 컸던 것에 주목했다. 당시 중국의 지도의 제작은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첫째는 청 전기에 제작되어 민간에는 거의 보급되지 않았던 『皇輿全圖』³⁾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져 지도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민간에서의 지도의 출판과 유통이 활발해지고 서양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지도 제작이 근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호남지역의 지식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이 지역의 학풍, 지식인들의 인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청 후기 중국 지도의 변화와 발전 상황을 호남지역 인사의 영향만으로 이야기하기엔 충분하지 않지만 중국의 지도발달사에서 청 후기처럼 한 지역 인사들의 영향이 두드러진 경우도 드물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청 후기 지도제작의 두 가지 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 호남지역의 학풍과 학자들이 이런 변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 그 의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호남지역의 개관과 청 후기 사회적 분위기

1) 梁啓超, 『近代學風之地理的分布』, 臺灣中華書局印行, 1957年(1936年 初版).

2) 『近代學風之地理的分布』, 4쪽.

3) 清 康熙 57년(1718)에 10여 년 간의 전국 각지의 경위도 실측 결과로 만든 전국지도이다.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수정, 보충되었으며 雍正과 乾隆 연간에도 영토의 확장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졌다. 『皇輿全覽圖』, 『雍正十排全圖』, 『乾隆十三排全圖』, 『內府輿圖』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여기서는 강희, 옹정, 건륭 시기 만들어진 같은 계열의 지도를 『황여전도』라고 통칭하고자 한다.

1) 호남지역 개관

호남지역은 강남에 위치해 있으며 長江의 중류 지역에 속한다. 대부분의 지역이 洞庭湖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湘江이 省을 남북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湘”이라는 약칭을 갖고 있기도 하다.

동쪽으로는 幕阜와 武功 등의 여러 산으로 江西省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서쪽은 雲貴高原의 동편으로 貴州省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武陵山脈으로 重慶과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南嶺으로 廣東省, 廣西省과 이웃하고 있다. 북쪽은 濱湖平原을 사이에 두고 湖北省과 접경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쪽은 동정호에 면해 있어 지세가 평탄한 편이고 동, 남, 서쪽은 고산으로 둘러싸여 천연의 장막이 쳐있는 형상이다. 기후는 온난 습윤하고 湘, 瀟, 沅, 澧 등 동정호에 밀집되는 수계로 장강등과 연결되어 주변 지역과의 수상교통이 편리하고, 호수 주변의 충적평원은 토양이 비옥해 농업생산에 매우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호남지역은 先秦時期 楚 문화권에 속해 전통적인 중원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호남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청대에 들어서인데 그 전까지 호남지역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지열한 전투의 장소가 되어 안정적인 발전을 누리기가 어려웠다. 청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는 국가적 안정을 바탕으로 강서 등지에서 이민이 많이 유입되어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해 문화교류와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다.⁴⁾

청대 동정호 주변을 중심으로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호광의 곡식이 익으며 천하가 배가 부르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지역은 중국의 주요 곡창지대로 떠올랐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咸豐, 道光 연간에 이르면 지역의 학문과 교육 역시 발달해 뛰어난 인재가 배출될 만한 훌륭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2) 阿片戰爭(1840-1842) 이후 호남지역 인사들의 사회진출

湖湘學派라고 불리는 중국 호남지역의 학풍의 특징의 원류는 宋代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호상학파는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의 호상학파는 남송 초년에 형성된 호남의 지역성 학파를 말한다. 광의의 호상학파는 남송 초년의 호상학파가 개창한 호남문화의 전통을 말한다. 남송 초년 호상학파를 개창한 胡宏 부자 이후 이 지역의 학문적 특색은 湖南書院의 교육으로 계속 이어졌다. 호남서원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광의의 호상학파라고 한다. 광의의 호상학파는 비록 시간의 간격이 매우 크고 사상적으로도 직접 계승관계가 없지만 명청 교체기의 王夫之(1619-1692)를 비롯해 중국 근대의 시작 무렵의 魏源(1794-1857), 洋務運動의 창시자 曾國藩(1811-1872) 등이 모두 호남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와 교육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다.⁵⁾

특히 위원은 호남문화의 민족주의 사상의 전통을 이어받아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 시기에 애국사상을 강조하는 한편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그들의 침탈을 막아내고자 했으며, 양무운동의 창시자 중의 하나인 曾國藩은 호남문화의 “경세치용” 전통을 계승해 적극적으로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과 근대적 공업을 받아들여 중국을 발전시키고자

4) 汪澍白, 「試析湖湘文化源流」, 『湘潭大學學報』(1991年 第4期), 7-8쪽.

5) 劉興邦, 「湖湘學派與湖南文化傳統」, 『湘潭大學學報』(1996年 第1期), 29-30쪽.

했다.

양계초는 청대 호남지역의 학문이 청 초기에는 왕부지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못했는데 청 중후기에 이르면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고 말했다.⁶⁾ 양계초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근대 학술계에 호남의 인재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된 원인에 대해 많이 연구했는데, 그 결과 청 후기 이 지역 인재들의 활동은 청 후기 호남지역의 지위가 급속도로 높아지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⁷⁾

아편전쟁 이후 호남지역 인사들의 두드러진 활동에는 호남지역 자체의 지위가 전과 비교해 높아진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편전쟁을 비롯한 太平天國운동(1851-1864), 捻軍 등 국내외적 위기 상황이 호남지역 인사들의 현실적인 정치 참여에 결정적인 원인제공을 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영향력이 높아졌다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乾隆 말기부터 서서히 시작된 국내의 혼란은 嘉慶 연간에 더욱 심화되었고 道光 20년(1840)에 벌어진 아편전쟁으로 국외 세력의 침략까지 더해져 청조는 결정적인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태평천국 운동은 호남지역 인사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홍수전 등이 1851년 광서성에서 처음 병사를 일으킨 후 그 이듬해 호남성의 道州, 長沙, 岳陽 등의 지역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이 난의 진압과정에서 청의 정규군 뿐 아니라 호남의 지방 무장세력이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들 무장집단을 湘軍이라고 했다.

이 상군의 창시자가 曾國藩(1811 - 1872)이고 주요 참여 인물들로는 左宗棠(1812-1885), 胡林翼(1812 - 1861) 등이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학문적 사상이 바로 “經世致用”이었다. 즉 세상에 도움이 되는 학문, 국가적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학문과 연구태도를 중시했는데, 청 후기 이런 사조의 시작은 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皇朝經世文編』의 편찬에 참여하며 “治國平天下”를 할 수 있는 경세치용을 할 것을 주장했다.

경세치용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응하는 태도를 뜻하며 “治國平天下”를 추구하는 학문 태도를 강조한다. 즉 지식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회의 실제적인 정치,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청 중후기부터 근대까지 호남지역 학풍의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근대 중국학술사의 일부분인 호남학풍과 그것이 반영하고 학술적 특징은 阿片戰爭전후 중국의 사회, 정치적 위기가 학술 사조에 반영된 것으로 근대 사회의 독특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위원 등의 인물이 제창한 경세치용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의 호남학풍은 뒤를 이은 湘軍 인물들의 선양을 통해 일종의 호남사인들의 학술적 전통과 풍격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⁸⁾

이런 학풍을 바탕으로 중국을 발전시키고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 청 후기 호상학파 인물들은 서양의 선진적인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배우려고 하는 한편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와 지리를 더욱 중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리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曾國藩, 胡林翼, 左宗棠 등의 인물들이 개인적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輿地學”에도 많은 흥미를 가지고 연구했을 뿐 아니라 서양의 선진적인 측량, 제도 기술과 과학적 기기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太平天國 진압의 과정에서 직접 지도를 그려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6) 『近代學風之地理的分布』, 30쪽.

7) 汪澍白, 「試析湖湘文化源流」, 8쪽.

8) 王繼平, 「近代湖南學風與湖南人才群體的結構及特質」『湖南社會科學』, 1989年 第3期, 57-58쪽.

정확한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도제작에 있어서도 중국의 전통적인 제작방법 뿐 아니라 당시 서구 각국의 측량, 제도 방법을 도입하고 서구의 지리학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힘썼던 것이다.

청 중후기의 호상학파의 학문적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經世致用”이다. 중국에서 이 경세치용의 사조가 호남지역에서 또는 청 중후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 호남지역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 사조는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국내적 불안 뿐 아니라 해외 세력의 침략까지 더해져 더욱 확실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명말청초의 경세치용 학파가 전통적인 학문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청 후기 호남지역의 경세학파는 위기타개의 방법으로 외국의 선진 문물과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중국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되 필요하다면 서양의 기술을 전통적인 지리학, 지도학 등에 연계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3. 호남지역 사인들의 지도제작 참여와 그 영향

앞에서 설명한 시대적 배경과 호남지역의 학풍을 바탕으로 증국번, 좌종당, 호림익 등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청 후기 지도제작의 변화와 발전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로 지도 제작을 지원하고 감수하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이들 주도로 여러 종류의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들이 지도제작의 실무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새롭고 정확한 지도제작을 독려하고, 편찬하업을 벌이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좀 더 큰 역할을 발휘했다.

지도 제작 실무 작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호남학자 중에는 추대균이 있는데, 이 추대균의 집안은 대대로 지리학과 지도학에 조예가 깊어 특히 청 말기에서民国 초기 중국 지도 출판, 편집 등의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인물중심으로 어떤 지도를 만들었는지 이것이 청 후기 지도학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魏源의 서양지리 소개

청 후기 경세치용의 학문적 자세와 지리학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위원이었는데, 그는 『聖武記』, 『海國圖志』 등을 편찬해 적극적으로 서양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앞장섰다.

아편전쟁을 전후로 청의 국세는 나날이 쇠약해지고 변강의 상황은 날로 위급해지면서 경세치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더더욱 변강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하는데 힘쓰게 되었다. 아편전쟁 후에 이런 변화를 주도한 학자들은 공통된 출신지역과 학술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경세치용”의 학풍아래 현실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는데 당시 청조는 서방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다방면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서양의 선진적 과학 기술을 배우자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났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林則徐(1785-1850)와 위원(1794-1859)이었다.

임칙서는 일찍이 위원과 함께 경세의 학문을 제창했으며 최초로 자강운동을 주장한 관원층의 하나였다. 그는 아편전쟁 중 흠차대신의 신분으로 광주에 도착한 후 서양의 인문지리와 군사기술을 소개하는 책들을 번역하고 편찬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世界地理大

全』(Cyclopaedia of Geography)와 『四洲志』였다. 그는 이 책들을 통해 30여개 국가의 역사와 지리를 소개했는데 이후 임칙서는 그가 모은 자료를 위원에게 넘겨주어 위원으로 하여금 『해국도지』를 쓰게 했다.

위원은 『四洲志』를 기초로 다른 중외의 문헌들을 참고해서 각국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중국이 어떤 대외정책을 펼쳐야 하는 등의 내용을 썼는데 이 책이道光 23년(1843)에 완성된 『해국도지』이다.

2) 胡林翼(1812 - 1861)의 『皇朝中外一統輿圖』

『皇朝中外一統輿圖』는 호림익이 호북성 巡撫로 있을 때 胡林翼, 嚴樹森(?-1876) 등의 책임 아래, 鄒世詒(1838-1908年), 晏啓鎮 등이 제작 작업에 참여하여 同治 2년(1863)에 완성된 지도책이다.

이 지도의 범위는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쪽으로는 러시아 북해 지역까지 아우르는 지도이다. 지도는 중국의 전통적인 計里畫方과 서양의 경위선을 동시에 이용했고, 방안 하나를 100리로 정하고, 위도 1도를 200리로 정해 그려졌다. 지도에는 府, 廳, 州, 縣의 위치와 주요 山川, 城邑, 關塞, 鎮堡 등이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었고 책의 형식으로 간행되었으며 『大清一統輿圖』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지도책의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지도는道光 12년(1832)에 李兆洛(1769-1841)이 간행한 『皇朝一統輿地全圖』이다. 이조락이 제작한 지도는 『古今圖書集成』 중의 지도와 강희, 건륭 시기에 제작된 『황여전도』를 참고해 제작한 것이다. 이조락이 이 지도를 간행하며 쓴 서문에는 청 전기에 완성된 『황여전도』는 당시 민간에서 쉽게 구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조락도 지도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민간의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건륭의 『황여전도』를 구해 서북 지역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었다고 했다.⁹⁾

호림익이 지도책의 편찬을 다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후 뒤를 이어 지도책을 완성한 汪士鐸(1814-1889)의 설명에 따르면 호림익은 평소 지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새로운 지도를 만들기 위해 이조락 지도를 면밀히 살폈는데, 지도에 郡邑의 이름만 있고 다른 지명은 없을 뿐더러 지명이 좁아 내용을 첨가할 수 없어 강희, 건륭의 지도를 참고해 추세이, 안계진 등에게 면밀히 연구하고 수년 동안 연마해 새로운 지도책을 만들었다고 했다.¹⁰⁾

호림익의 지도와 이조락의 지도는 모두 청 전기의 실측 지도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기술적으로는 經緯線法과 方眼圖法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지도책 모두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른 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지도책의 형식으로 간행된 호림익의 지도가 청 말기와 민국 초기에 출판된 지도와 지도책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청 후기에 많이 나타나는 위도 1도를 단순히 200리로 계산한 방안도법으로 그려진 지도들은 거의 호림익 지도의 영향 때문이다.¹¹⁾

특히 호북성에서는 호림익의 지도책을 펴낸 후 계속해서 이것을 저본으로 일련의 지도를 간행하는데 동치 3년(1864)에 간행된 26폭으로 구성된 各省地圖集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지도집 역시 방안도법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경위선은 그려져 있지 않다. 호림익의 지도

9) 李兆洛, 『皇朝一統輿地全圖』例言, 북경대학도서관 소장본.

10) 汪士鐸, 『汪梅村先生集』卷九, “大清一統輿圖後跋”(代), 光緒7年, 북경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11) 高僑, 「試論我國地圖的數學要素和表示方法的演進特色」, 『測繪學報』第6卷(1963), 127쪽.

가 편찬된 후에는 대다수의 지도가 경위선 도법 대신 전통적인 계리화방의 방법으로 회귀했는데 이것도 청 말기 지도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향은 청 光緒 연간에 『會典輿圖』에 들어갈 각 지역의 지도를 제작할 때도 계속되었는데 광서 연간에는 각 지역의 경위도를 실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그릴 때는 방안도법만을 사용하기도 했다.

호림익의 지도는 지도의 계보상 『황여전도』계통에 속하지만 강희, 건륭 시기의 영향을 직접받았다고 보다는 같은 계통에 속하는 이조락의 『황조일통여지전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청 후기 『황여전도』의 광범위한 보급에는 또 한 사람의 호남지역 인사인 長沙 출신의 胡錫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호석연은 함풍 6년(1856)에 廣州에서 이조락의 지도를 책의 형식으로 재편집해 『皇清地理圖』를 출간했고, 동치 10년(1871)에는 광주의 俞守義가 호석연의 지도를 다시 중각했다.

청 전기의 지도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인 『황여전도』는 이처럼 호남지역 인사들의 노력으로 재출간되고 전국으로 보급되어 청 전기와는 달리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황여전도』를 이용하고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것은 청 말기 중국 지도의 종류를 더욱 다양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다.

호림익으로부터 시작된 호남, 호북 지역의 지도 제작 기술과 전문 인력은 광서 연간에 『會典輿圖』를 제작할 때도 유감없이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당시 전국적으로 측량과 지도 제작 사업을 벌이면서 청 정부는 전문인력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호남과 호북성 같은 경우는 일찍이 축적된 기술과 비교적 충분한 전문 인력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지도의 제작이 순조로웠을 뿐 아니라 지도의 수준도 다른 성에 비해 높았다. 이 때문에 인근의 安徽省 같은 경우는 호광총독에게 측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구 등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문 인력과 기구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雲南省의 경우처럼 호림익의 지도책과 옛 지방지 등을 참고해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지학사에서 출판된 지도들도 국내의 경우 호림익의 지도를 저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등 호림익의 지도는 지도의 편집과 출판이 근대화된 청 말기와 민국 초기까지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했다.¹²⁾

호림익 지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지도들에는 전국총도, 지역도, 역사지도집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지도가 역사지도이다. 청 말기를 대표하는 역사지도집으로는 楊守敬의 『歷代輿地圖』와 『水經注圖』가 있다. 양수경은 이 두 지도집을 간행하면서 호림익의 지도를 저본으로 사용했다.

호림익 지도는 강희, 건륭 연간의 『황여전도』를 민간에 광범위하게 유통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으며 경위선 도법과 방안도법을 같이 사용하며 청 말기 출간된 대다수의 지도와 지도책이 방안도법만을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지도의 광범위한 보급은 청 초기 실측지도의 성과를 소수의 고위 관원이나 지식인 뿐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출판된 많은 지도들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청 후기 민간에서는 『황여전도』를 기초로 해 많은 지도들이 간행되었는데 호림익의 지도가 바로 이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

12) 鄒代鈞, 『中外輿地全圖』序文, 「鄒代鈞與中國近代地理學的萌芽」(張平, 『自然科學史研究』第 1990年 第1期, 81-82쪽)에서 다시 인용,

3) 曾國藩 등의 지도제작 참여

태평천국의 난은 호남지역의 인사들을 결집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태평천국은 양광, 양호 지역을 비롯해 강소, 절강, 안휘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이 혼란에 맞서 각 지역의 신사들이 관군과 함께 이들에 맞서 싸웠다. 특히 증국번, 좌종당, 호림익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상군은 그 중에서도 특출난 군사집단이었다.

증국번, 증국전, 좌종당, 호림익 등은 모두 지리학과 역사학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顧祖禹의 『讀史方輿紀要』, 顧炎武의 『天下郡國利病書』, 齊召南의 『水道提綱』등의 책을 탐독하며 연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입하자는 주장과 함께 중국의 역사와 지리도 매우 중시했는데 특히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지리적 정보가 담긴 지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투의 과정에서 직접 지도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¹³⁾

동치 원년(1862)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진압이 막바지에 도달해 청조가 남경을 수복하려고 공격할 때 증국번, 증국전, 이홍장, 호림익 등이 일찍이 관련 지도를 그려 군기처에 소장되었다. 현재 북경의 第1歷史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는 軍機處 輿圖目錄을 통해 전쟁의 각 단계에 상응하는 지도의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현재 이 목록에는 약 76종의 지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태평천국과 염군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만든 지도들이다. 이 중 증국번이 올린 지도가 4종, 증국전이 올린 지도가 2종, 좌종당이 올린 지도가 8종(이홍장과 같이 올린 지도 1종 포함), 이홍장이 올린 지도가 5종(좌종당과 같이 올린 지도 1종 포함)으로 이들이 전투과정에서 지도의 제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직접 제작 외에도 호림익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도의 제작 책임을 맡기도 했는데 태평천국 운동이 모두 진압된 후 동치 연간에는 여러 종류의 分省地圖集이 간행되었는데 이 작업을 증국번이 주도했다.

동치 2년(1863)에 청의 조정에서는 각 성에 명령을 내려 해당 지역의 지도를 그리고 지도집을 중앙으로 올려 보내도록 했는데, 이 작업은 동치 7년(1868)에 마무리된다. 명령이 내려진 동치 2년은 태평천국의 난이 평정된 시기이며 마침 호림익의 『황조중외일통여도』가 완성되어 좋은 저본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는데 적절한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청 조정은 동일한 각 성마다 동일한 기술 규정과 통일된 부호 방식으로 지도를 제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 성의 지도집은 모두 경위선 도법이 아닌 1도를 200리로 계산하는 방안도법으로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지도는 성도와 그 성에 속해있는 부, 주, 현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성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축척을 사용했다.¹⁴⁾

그 외 청 말기 설립된 “亞新地學社”의 주축 인물들이 증국번의 특혜를 받아 서양의 여러 나라에 직접 가서 서양의 지도학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한 사람들이라는 데서 증국번 등이

13) 당시 증국번, 증국전, 호림익, 좌종당 등이 함풍, 동치 연간에 태평천국, 염군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도들을 그린 정황은 『淸實錄』에 잘 나와있으며, 第1歷史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는 『軍機處輿圖簡目』을 통해서도 당시에 그려진 지도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4) 李孝聰, 美國國會圖書館藏中文古地圖紋錄, 文物出版社, 2004, 39-41쪽.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鄒代鈞(1854-1908) 과 輿地學會

호림익, 증국번, 좌종당 등이 청 후기 지도제작에 미친 영향은 직접 제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제작에 책임을 맡는다던지, 지도 제작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청 후기 호남지역의 인물 중에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도제작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준 사람 외에도 직접적으로 지도제작자라고 볼릴 수 있는 인물들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추대균을 비롯한 같은 집안 사람들이다.

이 집안의 “여지학”은 가경 연간의 吳夫人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오부인은 원래 여지학 방면에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오부인의 자손들에 대한 교육이 이후 추씨 가문의 여지학 전통을 잇게 된 것이다. 오부인은 여섯 鄒漢紀, 鄒漢瑄, 鄒漢勛, 鄒漢嘉, 鄒漢章, 鄒漢池 등의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여지학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추한훈이다. 추한훈은 『貴陽府志』, 『大定府志』 등의 지방지 편찬에 참여하고 『水經移注』, 『寶慶疆里圖說』 등의 지리 전문 서적을 저술하기도 했다. 추한훈의 손자 중의 하나인 鄒世詒가 바로 호림익의 『황조중의일통여도』 제작에 참여한 인물이다. 추세이는 이 뿐만 아니라 直隸, 貴州, 湖北, 湖南의 『通志圖』의 제작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추한훈의 또 다른 손자인 鄒代鈞이 바로 중국 최초로 민영 지도 출판 사업을 시작한 여지학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¹⁵⁾

鄒代鈞은 좌종당, 장지동 등과 교류가 깊었는데 광서 11년(1885)에 사신단의 수행인원 중의 하나로 같이 가게 되었다. 추대균은 영국에 있는 동안 서양의 지도 제작, 편집, 인쇄 기술 등에 대해 연구하고 유럽 각 나라의 지리와 지도 자료를 수집하는데 힘썼다. 광서 15년(1889) 추대균이 영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오면서 각국의 각종 지리, 지도책을 가지고 돌아와 계속 연구에 매진했고 그 결과로 추대균은 中國輿地尺을 발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미터법에 의거해 중국의 지도를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중국여지척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중국에서 제작되는 지도에 신뢰할 수 있는 표준 거리를 제공하는 셈이었다. 그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후에 서양에서 수집한 지도 자료와 중국 각지의 상세한 지도 200여 폭을 더해 모두 600여 폭 규모의 『중외여지도』를 완성하기도 했다.¹⁶⁾

그가 영국에서 돌아왔을 무렵 청 조정은 마침『회전』편찬을 준비하고 있었고, 여기에 들어갈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강희 연간 이후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국적인 경위도 실측과 각 지역의 지도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추대균은 중국과 서양의 측회법을 자세히 심도 있게 정리해 올렸는데, 이것을 본 會典館의 총재가 이에 매우 만족해서 추대균을 회전관의 纂修로 천거했다. 그리고 광서 17년(1891)에 湖北輿圖局이 성립되자 당시 張之洞(1837-1909)이 추대균을 이 여도국의 總纂으로 초빙해 『湖北全省地圖』를 만들게 되었다. 이 지도는 광서 20년(1894)에 완성되었는데 당시 『會典輿圖』에 삽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성의 지도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지도였다.

추대균은 이렇게 정부 주도하의 지도제작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陣三立, 汪康年 등 뜻이

15) 湖南文獻委員會, 『湖南文獻匯編』(第1輯, 第2輯), 湖南人民出版社, 2008, 155쪽.

16) 江凌, 「晚清時期武昌輿地學會的輿圖出版及二經營特點」, 『湖北經濟學院學報』(2008年 第5期), 125쪽.

맞는 사람들과 함께 여지학회를 설립해 중국 지도의 편집과 출판 방면에서 근대화를 이끌기도 했다.

중국의 최초의 민영 지도출판회사의 모태가 되는 여지학회의 설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광서 17년(1891)에 호북여도국이 성립되었는데 당시 호광총독이었던 장지동이 추대군을 초청해 여도국의 총찬을 맡겼다.

- 광서 21년(1895)에 武昌에서 “譯印西文地圖公會”가 열렸다.

- 광서 24년(1898)에 추대군이 “印地圖公會”를 “譯印地圖公社”로 바꾸었다. 이것이 후에 “輿地學社”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輿地學會”로 개칭되었다.

- 광서 24년(1898)에 “亞新地學社”가 설립되었다. 추대군의 조카 鄒永暄이 처음 만들었으며 지도와 역사서를 전문적으로 편집출판하고 발행하는 기관이었다. 이 회사는 이후로 55년간 지속되며 300여 종에 달하는 각 종 지도와 지리학 서적을 출판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 근대사에서 처음으로 성립된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영 지도출판사였다. 이 회사는 1953년에 아신지학사와 전국 10개의 지도출판사가 합병되어 상해에 지도출판사를 설립하였고 후에는 북경으로 옮겨 국영 지도출판사로 되었다.

무창에서 설립된 여지학회 지도의 특징은 지도의 관리가 엄격하고, 제작과 편집이 과학적이어서 신뢰성이 높았다. 국내의 분성지도는 호림익의 지도책과 회전관의 각성지도, 분현지도 등을 참고했다. 또 동판의 채색 소축척 지도의 선례를 남겼다는 특징이 있다.¹⁷⁾

5) 청 후기 호남지역 인사들의 중국 지도발전에 대한 영향

도광 이후 많은 호남지역의 지식인들이 경세치용의 구호 아래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드릴 것을 주장했는데 그들은 청 후기 내외환의 상황에서 청의 무기와 장비, 과학기술 등이 서양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원의 사상을 계승하며 서양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했다. 또 이들은 태평천국과 옹군 등의 내부반란을 진압하고 외국과의 교섭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군정, 경제 등에서 실권을 잡게 되면서 국가의 여러 정책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도의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호림익의 지도집과 증국번이 주도한 각성지도집 등의 새로운 지도의 편찬과 지도 제작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는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리와 지도에 대한 관심과 연구 외에도, 그들은 각 지에 官署局을 설립해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그들이 각지에 설립한 이 관서국들이 청 말기와 민국 초기에 중국의 민간 지도출판 사업이 탄생하고, 수 많은 지도를 제작하는데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특히 호림익이 호북성 무창에 설립한 서국은 汪士鐸(1814-1889) 등의 인물을 초빙해 많은 역사책과 지리책을 간행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앞서 설명한 『皇朝中外一統輿圖』와 『水經注圖』등도 포함되어 있다.

3. 맺음말

본고는 청 후기 중국의 지도제작과 발달에 호남 출신 인물들의 영향이 큰 것에 주목해 호남지역의 어떤 학문적 특징과 개인적 관계가 청 후기 지도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

17) 江凌, 「晚清時期武昌輿地學會的輿圖出版及經營特點」, 127-128쪽.

펴봄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학문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했다.

청대의 학술사에서 호남지역의 학풍과 인물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은 청 중기 이후인데, 이것은 도광 20년(1840)에 벌어진 아편전쟁을 비롯해 捻軍, 太平天國 등으로 인한 청 후기의 정치, 사회적 위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 후기 호남지역에서 “경세치용” 사조를 이끌기 시작한 것은 위원이었다. 위원에서 비롯된 이런 학풍은 曾國藩, 胡林翼, 左宗棠 등의 학자이자 정치가들에게로 이어져 호남지역 뿐 아니라 청 후기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적 위기에 맞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난국을 이겨내려고 했던 이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바로 역사와 지리였다. 특히 지리학의 경우는 曾國藩, 胡林翼, 左宗棠 등이 모두 捻軍과 太平天國을 진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확한 지리적 정보, 특히 정확한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에 새로운 지도의 편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이것이 청대 후기 지도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당시 호남학파의 지식인들은 전투의 과정에서 직접 지도 제작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지도책이나 새로운 전국지도책을 편찬하는데 책임자 역할을 맡기도 하고 인재를 해외에 파견해 서양의 지리 서적을 수집하고 그들의 제작 기술을 배워오게 하는 등 간접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호림익이 편찬을 시작해 嚴樹森이 책임을 완수한 『皇朝中外一統輿圖』는 청 전기의 『皇輿全圖』의 성과 뿐 아니라 조금 앞선 시기의 李兆藩의 『皇朝一統輿地全圖』의 성과까지 이어받아 만든 지도책이었다. 이 지도책을 계기로 그 전까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던 청 조정에서 만든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가 민간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했다.

증국번과 좌종당 등도 지도전문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그들에게 해외에서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鄒代鈞이었다. 추대균의 집안은 전통적으로 輿地學에 매우 조예가 깊었으며 추대균의 작은 아버지인 鄒世誥는 호림익의 『황조중외일통여도』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추세이의 아버지인 鄒漢勛 역시 양계초가 언급한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이기도 했다.

청 후기 호남지역의 추씨 집안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지도제작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했으며 특히 추대균이 주도해 만들어진 “輿地學會”는 중국 최초의 민간 지도 출판사인 亞新地學社의 모태가 되는 단체이며, 이곳에서 출판된 지도는 중국 지도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렇듯 청 후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경세치용의 학풍을 기반으로 형성된 호남학파는 전통적으로 현실 정치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 호남지역 지식인들의 성향이 청 말기 지도학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어졌던 청대 후기의 지도들을 호남지역의 학풍과 연결시켜 한 번에 조명하려고 한 점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 이야기한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징이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 그리고 학문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호남지역의 학풍과 인물관계를 제외한 청 후기 호남지역의 지리적 특징과 지도학 발달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즉, 당시 중국의 지도학 발달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지역적 특징과 학풍의 형성, 학문발달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고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정에서 계속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清實錄(中華書局, 1985)

李兆洛, 『皇朝一統輿地全圖』, 북경대학도서관 소장본.

皇朝中外一統輿圖(규장각, 奎中2853)

皇朝直省地輿全圖(규장각, 奎中5583)

汪士鐸, 『汪梅村先生集』, 光緒7年, 북경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江凌, 「試論清代兩湖地區私家刻書的特點及二興盛原因」, 『湖南文理學院學報』(2008年第4期).

江凌, 「晚清時期武昌輿地學會的輿圖出版及二經營特點」, 『湖北經濟學院學報』(2008年第5期).

高僑, 「試論我國地圖的數學要素和表示方法的演進特色」, 『測繪學報』(1963年 第6卷).

歐陽斌, 「曾國藩與同代湖湘學人關係述論」, 『求索』(1998年 第4期).

北京圖書館善本特藏部輿圖組編, 輿圖要錄, 北京圖書館出版社, 1997.

梁啟超, 『近代學風之地理的分布』, 臺灣中華書局印行, 1957(1936初版).

梁啟超, 梁啟超論清學史二種, 復旦大學出版社, 1985.

楊布生, 彭定國, 「湖湘學派原流與經世致用」,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2003年 第6期).

王繼平, 「論湘軍與晚清湖湘文化」, 『湘潭大學學報』(1998年 第5期).

王繼平, 「近代湖湘學風與湖南人才群體的結構及特質」, 『湖南社會科學』(1989年 第3期).

劉玲, 米華, 「湖南文化研究綜述」, 『湖南科技大學學報』(2009年 第4期).

劉興邦, 「湖湘學派與湖南文化傳統」, 『湘潭大學學報』(1996年 第1期).

李孝聰, 美國國會圖書館藏中文古地圖紋錄, 文物出版社, 2004.

張平, 「鄒代鈞與中國近代地理學的萌芽」, 『自然科學史研究』(1990年 第1期).

錢基博, 今百年湖南學風, 中國人民出版社, 2004.

鄭炎, 「湖湘傳統學風與湘軍」,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1990年 第4期).

周秋光, 夏石斌, 「近代湖湘文化研究述評」,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1990年 第5期).

朱漢民, 「湖湘文化的基本要素與特征」, 『湖湘論壇』(2000年 第5期).

陳先樞, 「試論湖湘學風的特征」, 『湖南社會科學』(1997年 第2期).

胡憶紅, 「道咸之際湖南士人的學術交游」, 『求索』(2006年 第9期).